

# 불박이 리드오프 박재현, 최강 테이블 세터 중심축

**‘확 달라진’ 호랑이 군단 1, 2번 타자...팀 타선도 반등**

5월 1·2번 타자 OPS 0.911 ‘리그 1위’...상위권 도약 승부수 출루·진루 이어 해결사 역할까지 척척, ‘최적 조합’은 진행형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1·2번이 달라졌다. 출루에 머무르지 않는다. 장타를 만들고, 점수까지 직접 책임진다.

팀 타선 반등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18일 기준 KIA는 2승 2패 1무로 5위다. 선두 KT와는 45게임 차.

아직 상위권과 격차는 크지 않다. 치고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 공격력이 살아나야 한다.

최근 그 가능성이 키운 자리가 1·2번이다.

5월 들어 KIA 1·2번은 타율 0.323으로 10개 구단 1·2번 중 4위다. 출루율(0.388)은 3위에 올라 있다. 테이블세터 본연의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

더 두드러지는 건 장타력이다.

장타율 0.528, OPS 0.911. 모두 리그 1위다. 1·2번이 단순히 방상을 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승부를 흔들고 있다.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변화는 더 뚜렷하다.

3·4월 KIA 1·2번 타선은 타율 0.245로 리그 8위에 머물렀다. 출루율(0.315)은 리그 최하위, 장타율(0.384)과 OPS(0.699)도 중하

위권이었다. 공격의 출발점으로 보기엔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5월은 다르다.

2루타 8개로 리그 2위, 홈런 6개로 1위를 기록했다. 특점은 2점으로 리그 공동 2위, 타점도 21점으로 2위다.

기회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필요할 때 직접 해결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팀 공격도 함께 살아나고 있다.

KIA는 지난주 6경기에서 팀 타율 0.306으로 리그 2위를 기록했다. 득점권 타율도 0.317이다.

중심타선이 찬스에서 꾸준한 가운데, 1·2번 타선이 앞에서 계속 문을 열고 있다.

공격의 짜임새가 달라진 셈이다.

기존에는 중심타선의 의존도가 컸다면, 최근에는 상위 타선이 먼저 주도권을 잡는다.

여기에 장타까지 나오면서 상대팀 배터리 입장에선 경기 초반부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 선봉에는 1번 박재현이 있다.

5월에만 4할대의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도루도 6개를 훔쳤다. 타격과 주루 모두 뜨겁다.

2번 자리 기여도도 눈에 띈다.



박재현 박상준 김호령 김선빈 <KIA 타이거즈 제공>

KIA 2번 타선은 최근 10경기에서 2루타 5개를 기록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원아웃 상황 타율은 0.389(18타수 7안타)로 리그 두 번째로 높다. 후속 타자 연결에서도 강점을 보였다.

아직 1·2번 최적의 조합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다만 리드오프 자리에 박재현이 확실히 굳어지는 분위기다. 2번은 김호령, 김선빈, 박상준,

대일 등이 번갈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합만으로도 상위 타선의 무게감은 분명 달라졌다.

지난주 삼성과의 주말 시리즈가 상징적이었던 15일 경기에서 KIA는 3·4로 끌려가던 9회 박재현의 역전 투런 홈런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16일엔 2번 김선빈이 1회 2루타로 공격의 물꼬를 텄다. 이어 0·2로 뒤진 6회 박재현이 동점 투

런포를 터뜨렸다. 17일에는 박재현이 6타수 5안타 2타점 4득점을 쏟아냈다. 2번 타자 박상준도 4타수 1안타 1타점 2득점 2볼넷으로 힘을 보탤다.

이 같은 활약 속에 KIA는 3연속 위닝시리즈를 완성했다.

KIA가 상위권 진입을 위해선 지금의 상위 타선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 시작점은 분명하다. 살아난 1·2번이다. /주홍철 기자

## “402일 기다림의 끝...다시 ‘나’를 증명하고 싶다”

재활마친 광도규 불펜 복귀 “2024년 모습 그 이상 보여드리고 싶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좌완 광도규가 길었던 재활을 마치고 다시 1군 무대로 돌아왔다.

KIA는 19일 광도규를 1군 엔트리에 등록했다. 지난해 4월 12일 말소 이후 402일 만이다.

광도규는 이날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자단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팀 승리에 도움이 되는 투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6경기 1홀드, 5이닝 6피안타 8탈삼진 2실점(ERA 3.60)을 기록했다. 결과보다 몸 상태 점검과 실전 감각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복귀를 앞두고 “긴장되기도 하고 기다렸던 만큼 설레기도 하다”며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군에서는 경기 운영보다 연투나 하루 간격 등 관리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데 집중했다”며 “생각보다 근육 움직임이나 부담이 줄어들면서 멈춤 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퓨처스리그 성적에 대해서도 아쉬움도 털어냈다.

“짧은 경기만 많지는 않았다. 실책이 겹치거나 사사구를 내준 경기들도 있었다”며 “오히려 그런 상황을 미리 경험하면서 안일했던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숫자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투구 감각도 점차 올라오고 있다.

“직구 구속은 들은 바로는 147km 정도 나온 것 같다”며 “연투 이후에도 몸 상태에 큰 문제는 없었다. 경기력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수정하고 올라왔다”고 말했다.

재활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몸의 가동 범위였다.

“예전에는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있었다”며 “떨어졌던 몸의 가동성과 움직임을 되찾는 데 집중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동료들의 존재도 큰 힘이 됐다.

특히 함께 재활을 거친 윤영철, 김도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광도규는 “서로 격



은 감정과 재할 과정을 공유하면서 큰 도움이 됐다”며 “토미존 수술을 경험한 동기들과 서로 조언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제 시선은 다시 1군 마운드로 향한다.

그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실제 1군 경기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좌절하지 않고 계속 더 나은 경기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과는 운이 따를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원하는 투구를 제대로 하고 내려오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목표도 분명했다.

광도규는 “결국 1군에서 도움이 되는 선수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2024년 모습 그 이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주홍철 기자



지난 16일 열린 FC안양 U15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2026 K리그 주니어 U15 A권역 전반기 저학년 리그 우승을 차지한 광주FC U15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U18에 이어 U15도 해냈다...유소년 시스템 성과 입증**

## K리그 주니어 저학년 리그 무패 우승

프로축구 광주FC U15(이하 광주 U15)가 2026 K리그 주니어 U15 A권역 전반기 저학년 리그 무패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U15는 지난 16일 안양자유공원에서 열린 FC안양 U15와의 저학년(U14) 리그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8경기 7승 1무로 무패 우승을 달성했다. 이번 우승으로 광주 U15는 창단 후 처음으로 리그 정상에 올랐다.

특히 광주 U15는 리그 최다 득점인 26골과 최소 실점인 7실점을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공격에서는 날카로운 결정력을, 수비에서는 조직적인 압박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갔다.

공격수 김강빈의 활약도 돋보였다.

김강빈은 리그 8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득

점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번 우승은 최근 U18의 리그 우승에 이어 광주 유소년 육성 시스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는 연령별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과 선수 맞춤형 훈련 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우수 자원을 배출하며 K리그 대표 유소년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U18에 이어 U15 저학년팀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며 구단 유소년 시스템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좋은 경험과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 ‘女축구클럽팀 최초 방한’ 내고향축구단, 공식 훈련 공개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하 내고향) 선수들이 한국 방문 사흘 만에 처음으로 짧게나마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내고향은 수원FC위민과의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공식 훈련을 가졌다.

공황이나 숙소 등에서 이동 시 한결같이 굳은 표정이었던 것과 달리 이날 내고향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나섰다.

훈련 시작 전 축구를 좋아할 때는 웃음소리가 곁에서 들릴 정도로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검은색 반소매 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훈련복을 입은 내고향 선수들은 코치의 지도 아래 터치라인을 따라 나란히 서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다 같이 ‘우와~’라는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몸을 푸는 내내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다.

10분 정도의 몸풀기가 끝난 뒤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들어가 가볍게 공을 돌렸고 약속된 15분이 지나자 취재진을 물린 채 담금질을 이어갔다.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건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차오심이 장우진(세아)과 짝을 이뤄 혼합복식에 출전한 이후 8년 만이다. 축구 종목으로 한정하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의 북측 선수들의 방한이다. 대표팀이 아닌 여자 축구 클럽팀의 방한은 최적이다. /연합뉴스